

김권식 | 조기경보부장 (제 7434)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다시 폐쇄하지 않기로 합의

- 월러 연준 이사,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도 단기 금리 인하 신중론 유지
- 라가르드 ECB 총재, 중동전쟁발 유로존 단기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 경고
-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5%로 예상치(4.8%) 상회

■ 국제금융시장: 이란이 휴전 기간 중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 전면 허용

주가 상승[+1.2%], 유가 급락[-11.5%], 금리 하락[-6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호르무즈 통항 허용 소식에 연일 사상 최고치
유로 Stoxx600지수도 +1.6% 상승
- 유가: WTI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에 -11.45% 급락한 83.85달러
Brent도 -7.4% 하락한 92.04달러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동안 호르무즈 개방에 하락
독일은 -7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65.9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7.2원, -1.1% 하락). 한국 CDS 약보합

		4/17일	4/16일	전일대비			4/17일	4/1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7,126.1	7,041.3	+1.20%	국채 금리 10y	미국	4.25%	4.31%	-6bp
	유럽	626.58	616.95	+1.56%		독일	2.96%	3.03%	-7bp
	중국	4,051.4	4,055.6	-0.10%		영국	4.76%	4.85%	-9bp
	일본	5,847.6	5,951.8	-1.75%	CDS 5y	한국	29.46bp	29.51bp	-1bp
	한국	6,191.9	6,226.1	-0.55%		중국	42.07bp	43.62bp	-2bp
	달러지수	98.23	98.22	+0.01%	위험 지표	EMBI+	-	254	-
유로화	1.1765	1.1781	-0.14%	VIX		17.48	17.94	-2.56%	
환율	엔화	158.64	159.17	0.33%		WTI유	83.85	94.69	-11.45%
	위안화	6.8182	6.8226	0.06%	원자재	구리	611.45	607.65	0.63%
	원화	1,483.5	1,474.6	-0.60%		금	4,830.3	4,790.1	0.84%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레바논 10일 휴전 합의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 개방되어 통항이 가능하나, 대이란 봉쇄 조치는 핵협상 타결 시까지 유지될 것이며, 협상의 상당 부분이 이미 조율된 만큼 타결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이란 외무장관은 레바논 휴전 협정을 근거로 휴전 기간 중 모든 상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되, 이란 항만해사청 지정 항로 이용을 조건으로 제시. 이란 의회는 해협 통과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힘. 블룸버그는 이를 이란이 해협 통제력을 사실상 유지하는 조치로 평가하며 전쟁 이전 수준의 완전한 정상화와는 여전히 거리가 있다고 분석
-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10일간의 휴전에 합의.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남부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불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레바논은 휴전 발효 후에도 이스라엘군의 간헐적 포격이 지속됐으며 휴전 협정 위반을 공식 비난
-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 추가 평화 회담을 제안. 양국 정상회담은 44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중 개최될 예정
-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레바논 간 휴전 합의가 대이란 평화 협상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테헤란과의 합의 임박을 피력하며, 이번 주말 내 협상 개최 가능성을 시사
- 영·프 정상은 40개국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개최해 호르무즈 해협 안보 및 유조선 안전 통항 지원을 위한 국제 연합체 창설 방안을 논의할 예정. 다만 이번 회담은 실질적 성과보다 상징적 연대 과시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 양국 모두 해당 지역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현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
- 워싱턴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수출이 차단될 경우 초인플레이션·경기침체·리알화 급락 등 이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 봉쇄 조치는 이란산 원유 일일 200만 배럴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효과를 갖지만,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수준(moderate)으로 전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월러 연준 이사,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도 단기 금리 인하 신중론 유지

- 월러 이사는 중동 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유로 단기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으로 무역이 정상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일시적 충격에 그칠 것으로 보고, 연내 후반부로 갈수록 통화 정책은 고용시장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밝힘

■ 민주당 상원위원, 워시 연준 의장 인준 청문회 연기 촉구

-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공화당 지도부에 워시 연준 후보자의 인준 청문회 연기를 요청. 법무부가 현직 연준 이사 두 명을 형사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지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 또한 해당 수사의 법적 근거 부족을 판결한 연방 판사를 대통령이 공개 압박하고 있는 만큼 지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

■ 라가르드 ECB 총재, 중동전쟁발 유로존 단기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 경고

- 라가르드 총재는 중동전쟁 이후 유로존 인플레이션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 기대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이 예상을 상회할 경우 실제 인플레이션이 기본 시나리오를 웃돌 수 있다고 경고

■ 유로존 2월 무역수지, 115억유로 흑자 전환 불구 예상치(117억유로) 하회

- 유로존 수출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2,324억유로, 수입은 2.2% 감소한 2,209억유로 기록

■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5%로 예상치(4.8%)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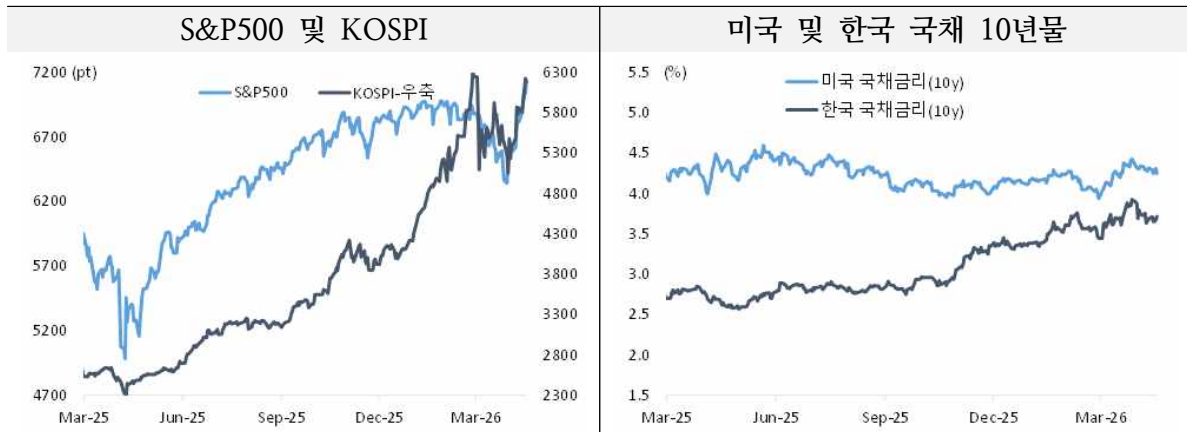
- 견조한 수출이 부진한 내수를 상쇄한 결과. 1분기 수출은 14.7% 증가해 2022년 초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 반면 3월 소매판매는 1.7%에 증가에 그쳐 예상치(2.3%)를 하회했고, 1분기 고정자산투자도 1.7% 증가로 예상치(1.9%) 하회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4/17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월 소매판매,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PMI(S&P Global) 발표
- 유로존 3월 생산자물가, 실업률, 소매판매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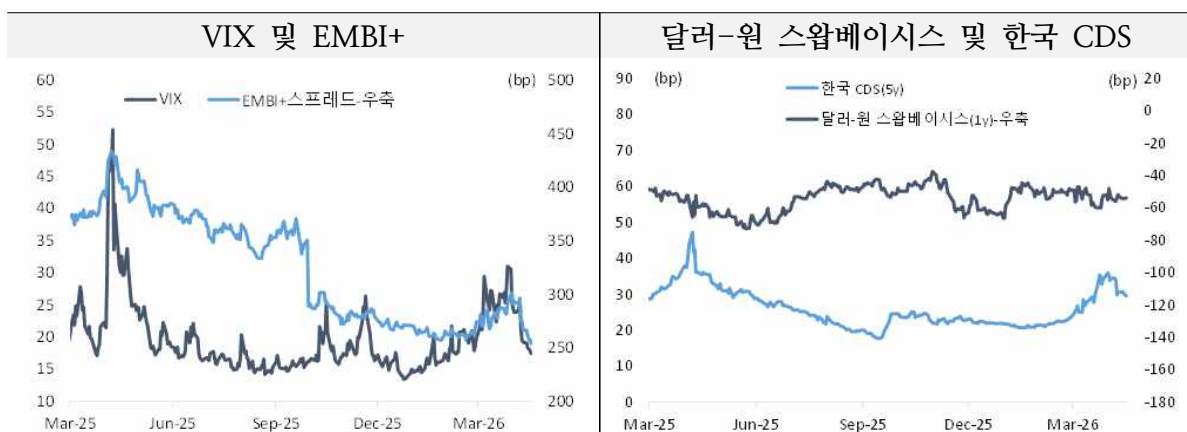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